

국내외 문헌정보학분야의 학술지 게재논문 패턴 분석*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와 사회과학인용색인(SSCI)를 기반으로 -

Comparative Analysis of Journal Publication Pattern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Based on KCI and SSCI -

이 혜 경(Hyekyung Lee)**

양 기 덕(Kiduk Yang)**

오 동 근(Dong-Geun Oh)****

<목 차>

I. 서론	1. 저자별 분석
II. 선행연구	2. 기관별 분석
III. 데이터 수집	V. 결론
IV. 분석결과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재된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4개 학술지 논문 768편과 국외 사회과학인용색인(SSCI)에 등재된 국외 문헌정보학분야 38개 학술지 7,302편의 논문을 수집하여 학술지 및 게재논문의 특성과 경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국내 학술지에 비하여 국외학술지가 다양한 발행 간격을 형성하고 있어, 국내에 비해 논문 투고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둘째, 국내학술지가 국외학술지 대비 논문 및 인용 수에서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셋째, 국외학술지의 공동연구논문의 게재가 국내에 비하여 높았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연구자들이 국외 학술지에 보다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국외 학술지가 더 높은 영향력을 시사하며, 광범위한 독자들이 국외 학술지를 구독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키워드: 문헌정보학, 학술지, 계량정보학,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사회과학인용색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ay the groundwork for internationalization of domestic journals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 (LIS).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7,302 papers from 38 SSCI journals and 768 papers from 4 domestic journals in LIS. Results show the publication and citation counts of domestic journals to be more evenly distributed than those of international journals, which suggests the presence of core international journals. In addition, citation rates and co-authored papers of international journals are shown to be much higher than that of domestic journals, suggesting that international journals publish research papers of higher impact and collaboration.

Keyword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Bibliometrics, KCI, SSCI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3068036)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fantarias3@gmail.com) (제1저자)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kiyang@knu.ac.kr) (교신저자)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odroot@kmu.ac.kr) (공동저자)

•논문접수: 2019년 11월 20일 •최초심사: 2019년 11월 27일 •게재확정: 2019년 12월 19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4), 493-510, 2019. [http://dx.doi.org/10.16981/kliss.50.201912.493]

I. 서론

현대사회 각 학문분야의 연구자들은 나날이 발전하는 세계에 발맞추어 저마다의 새로운 연구를 진행 한다. 단기적으로는 수개월, 장기적으로는 수년의 시간을 겪어가며 완성된 결과물은 비로소 논문 등을 통하여 세계에 모습을 드러낸다.

학술지는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수록하여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고 학문 분야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일조한다. 한 학술지 논문을 투고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무수한 연구시간을 투자해야 하며, 학술지들은 본 학술지의 명성과 위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하고 정교한 논문 심사 과정을 마련하고, 연구자들의 투고 논문을 면밀히 살펴, 당회 학술지에 논문의 게재를 승인한다.

한편, 정보화 사회는 연구자들이 오로지 인쇄물로만 접할 수밖에 없어 최신의 연구 동향을 확보하지 못하던 인쇄물시대를 넘어서 온라인 리소스와 오픈액세스 환경을 도래하게 하였고, 이는 학술지집단이 전 세계의 광범위한 구독자를 수용케 하는 획기적인 활로를 제공하였다. 더불어 Web of Science 나 Scopus 등 국외의 다양한 인용색인의 발전은 이와 맥락을 함께 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환경으로 국내에서는 한국 학술지 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이 존재한다. KCI는 국내 전 학문 분야의 학술지정보와 논문정보, 원문 및 참고 문헌 등을 DB화하여 논문자체의 정보뿐만 아니라 논문간의 인용 관계 등 학문분야에서의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한국학술지인용색인 2019).

한편, 현대의 학술지의 위상은 “국제화”라는 의미로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데, 영향력이란 어떠한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힘 즉, 현상에 대한 과급력을 의미하기에(표준국어사전 2019), 영향력이 높은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은 반드시 좋은 성과의 연구라는 즉각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지만, 연구의 질이 곧 연구 성과의 학문적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인식은 연구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하므로(Lundberg et al. 2006), 연구자들은 되도록이면 영향력이 높은 학술지에 그들의 연구 성과가 게재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학술지가 국제학술지로서의 성장과 변모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적 연구로서 국내 및 국외에서 현재 발행되고 있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지에 3년간(2014-2016) 게재된 논문데이터를 수집하여 출판의 차이를 분석, 국내와 국외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특성과 출판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로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지가 보완할 점을 파악하고, 국제 학술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나아가 이외 다양한 사회과학 연구 분야의 학술지가 국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초연구자료로서의 역할을 해낼 것이라 기대한다.

II. 선행연구

본 연구는 학술지선정과 발전방향의 개괄적 연구 및 국내 학술지의 국제화 및 국제학술지의 위상 강화에 관한 연구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각 학문분야에서의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한 관심은 지속 되어왔다. 그러나 Buela-Casal, G. 외 (2006)는 연구에서 국제 학술지가 가지는 국제성의 의미가 모호하다고 지적하였는데, 즉, 국제학술지로서의 성장과 변모는 학회의 학술지의 발전의 지대한 목표이나, 이를 평가하거나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이후 Buela-Casal, G.와 Zych (2012)는 학술지의 국제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국제 학술지는 최소 학술지 출판 언어와, 온라인에서의 학술지 접근 경로, 국제출판규범의 준수 등이 필요하며, 학술지 편집위원의 위상, 범 기관적 공동연구등도 주요한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필요 기준은 Calver, M 외(2010)의 연구에서도 유사 하게 확인 할 수 있는데, 그는 생물학 분야 39종의 학술지의 국제성을 평가하여 국제 학술지의 공통적 특성을 도출해 학술지의 국제성에 대한 지표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출판언어와 출판자의 편집자의 영향력, 국제적 공동연구, 재정적 기반 등이 수반 되어야 하며, 더불어 H-index나 JCR에서 제공하는 Impact Factor 등의 인용 영향력에 따른 정량적 수치로도 그 국제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였다. 결과적으로 국제학술지로서의 발돋움은 출판언어 즉, 세계적으로 통용되어지는 “영어”와 학술지의 편집위원의 역할, 학술지로서의 다방면 접근, 연구자들 간의 상호협력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연구 선행연구로 이승채(2003)는 미국의 학술지와 국내 학술지의 비교를 통하여 국내학술지의 현 상황을 파악하였다. 현재 부임중인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응답집단은 미국학술지가 국내학술지 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연구주제 측면에서의 독창성 및 유용성에서 미국학술지가 우세한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이는 설문대상들의 학위 취득 국가와 관계없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자집단이 생각하는 국내학술지의 질에 대한 인식이 미국학술지보다 저조함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신은자(2011)는 국내 학술지가 국제 우수학술지로 도약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SCIE에 등재되어있는 국내학술지 82종의 일반적 특성과, 국제성, 인용 및 가시성, 이용자 웹 서비스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SCIE는 국제와 유사한 논문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용은 아직 저조한 수준이며 학술지의 출판도 선진국 수준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외국의 연구자를 학술지 편집위원으로 영입하거나 국내외의 지속적인 홍보, 국제 학술대회 의 꾸준한 개최 등의 학회차원에서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신은자, 최희운, 서태설(2015)은 Korea Science를 통해 DOI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학술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4호)

지 143종의 국제학술지의 특성을 포함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국제학술지의 동일 기준과 비교하여 국내 학술지의 취약점을 파악하였다. 결과적으로 국내 학술지는 영향력지수 및 영문출판 등이 매우 저조하였으며, 한국이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연구자수, 적은 규모의 학회 등등 국제학술지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취약함이 드러났다. 이에 국내학술지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와 연구자 소속기관 등의 긴밀한 전략과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오동근 외 (2014)는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헌정보학분야의 국제학술지 2종(Journal of Infomatics, Malaysian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을 선정하여 발간사항과 편집진구성 인용정보 등의 사례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학술지의 국제학술지 등재 및 발전을 위해서는 초기 편집진의 영입과 역할의 중요성을 명시하였으며, 국가와 학계의 협력과 장기간의 집중적 투자와 노력이 절실함을 피력하였다. 이어 오동근 외 (2018)는 WoS와 Scopus의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동시에 등재된 학술지 2종과 그 자매지들과 더불어 해양학 분야에서의 국내 발간인 국제학술지1종과 그 자매지 1종의 논문데이터를 활용한 자매학술지 분석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등재학술지에 비등재 자매지보다 공동연구의 결과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그 차이가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국내 다수의 학자들이 국내 학술지의 국제적 발전을 위하여 다방면의 활로를 고안하고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살펴 본 바, 한 학문분야를 선정하고 국내외 학술지의 게재논문 데이터를 수집하여 구체적인 상이점을 분석한 연구와 이에 대한 논의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더불어 국내 학술지의 국제화 방안을 모색하고 전략을 제시하는 등의 후속연구를 진행을 위한 발판 및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Ⅲ. 데이터수집

본 연구는 2018년 10월부터 1개월 동안 2014년부터 2016년간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재된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 4종의 768편, 국외 사회과학인용색인(SSCI)에 등재된 국외 문헌정보학 학술지 38종의 7,302편, 국내외 총 42종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8,070편의 서지사항과 원본을 수집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표 1>과 같다. 한편, 2014년부터 2016년간 3년의 논문데이터를 수집한 이유는 인용수의 갱신이 약 2년 주기로 이루어지므로(양기덕, 이종욱, 최원석 2015; 2016), 데이터 수집 시 가장 완전하게 색인화 되어있는 기간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국외 사회과학인용색인(SSCI)에서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지 선정의 경우, Scopus에서 제공하는 SJR(Scimago Journal and Country Rank)

에서 문헌정보학 분야로 세부부류를 지정한 다음 SJR에서 순위 화하여 검색 가능한 학술지로 선정하였다. 이에 선정된 학술지는 <표 2>과 같다.

<표 1> 수집데이터 현황

	총 논문수	총 저자수	총 기관수	총 인용수
국내	768	530	152	762
국외	7,302	10,559	2,826	19,061

<표 2> 수집학술지 현황

지역	번호	학술지명	논문 수	저자 수 ¹⁾
국내	1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59	303
	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17	378
	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8	302
	4	한국정보관리학회지	164	408
국외	1	AFRICAN JOURNAL OF LIBRARY ARCHIVES AND INFORMATION SCIENCE	51	155
	2	ASLIB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120	525
	3	AUSTRALIAN ACADEMIC & RESEARCH LIBRARIES	174	246
	4	COLLEGE & RESEARCH LIBRARIES	215	3169
	5	ELECTRONIC LIBRARY	276	313
	6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227	96
	7	HEALTH INFORMATION AND LIBRARIES JOURNAL	114	260
	8	INFORMACAO & SOCIEDADE-ESTUDOS	114	301
	9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195	191
	10	INFORMATION RESEARCH-AN INTERNATIONAL ELECTRONIC JOURNAL	300	19
	11	INFORMATION SOCIETY	123	231
	12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60	691
	13	INVESTIGACION BIBLIOTECOLOGICA	103	318
	14	Informacao & Sociedade-Estudos	16	386
	15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99	521
	16	JOURNAL OF DOCUMENTATION	192	535
	17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184	320
	18	JOURNAL OF INFORMETRICS	556	638
	19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113	564
	20	JOURNAL OF SCHOLARLY PUBLISHING	82	197
	21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43	106
	22	JOURNAL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258	1760
	23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18	702
	24	KNOWLEDGE ORGANIZATION	186	372

1) 저자 수는 게재논문 및 학술지 별 중복저자를 포함한다.

국외	25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22	501
	26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8	691
	27	LIBRARY COLLECTIONS ACQUISITIONS & TECHNICAL SERVICES	20	214
	28	LIBRARY HI TECH	133	127
	29	LIBRARY QUARTERLY	169	574
	30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114	323
	31	LIBRARY TRENDS	122	258
	32	LIBRI	81	32
	33	MALAYSIAN JOURNAL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60	307
	34	ONLINE INFORMATION REVIEW	245	263
	35	PORTAL-LIBRARIES AND THE ACADEMY	154	163
	36	SCIENTOMETRICS	1107	174
	37	SERIALS REVIEW	151	145
	38	TRANSINFORMACAO	87	87

IV. 분석 결과

<표 3>은 수집학술지의 전반적 통계를 나타낸 것으로 한편의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 수는 평균적으로 약 192편으로 국내외 매우 유사한 출판수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국외학술지의 표준편차가 199로 각 학술지마다의 편당 게재논문수가 국내학술지에 비하여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는 국외학술지의 다양한 발행 간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표 4>는 국내외 학술지의 발행 간기를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국내외 학술지 모두 연간 4회 발간이 주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나, 국외 학술지의 경우 19종정도의 발행 간기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소 월 2회 발행, 최대 3년당 1회 발행 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등의 실제적으로 연간 매월 다양한 학술지가 발간되고 있고, 이는 한해 발표되는 게재 논문수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월간 새로운 학술지의 발행은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학술지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연구결과의 최신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국외학술지가 국내학술지 보다 평균 약 2.63배 정도 높게 인용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하여 국내학술지 4종은 국외학술지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고르게 인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술지 수록 논문 편당 평균인용 수는 국내 0.9회 국외 1.7회로 국외학술지가 국내보다 약 1회 정도 높게 인용되었다. 전반적으로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논문의 출판 수는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용 수에 있어서 국외학술지가 국내학술지보다 상대적으로 높지만, 국외학술지 마다의 편차가 크므로 학술지의 특성과 영향에 따라 게재논문의 차이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표 3> 학술지 통계 현황

	논문수				인용수				인용수/논문수			
	평균	최소	최대	편차	평균	최소	최대	편차	평균	최소	최대	편차
국내 (4)	192.0	159	228	30.8	190.5	132	240	40.5	0.9	0	1.5	0.3
국외 (38)	192.2	16	1,107	199	501.6	0	5,084	981	1.7	0.0	5.6	1.6

<표 4> 국내외 학술지 발행 간기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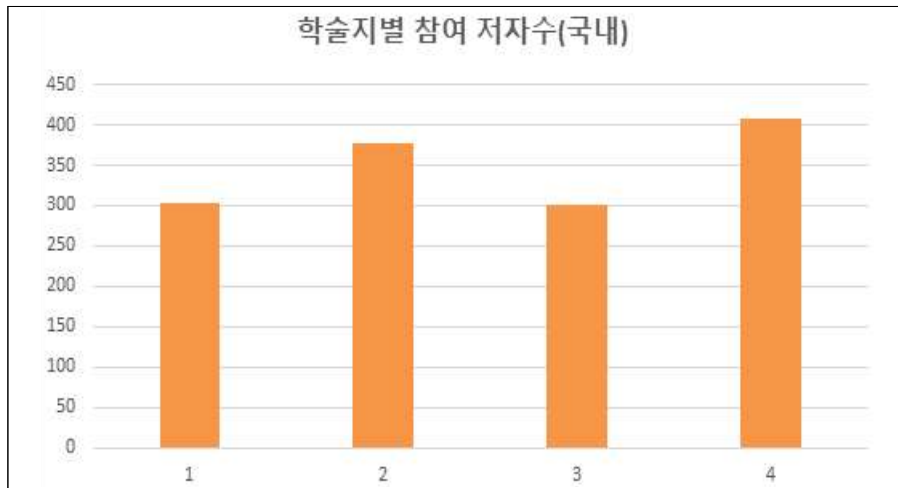
발행 간기	2/년	4/년	6/년	12/년	기타
국내(4)	0	4	0	0	0
국외(38)	3	18	7	2	8

1. 저자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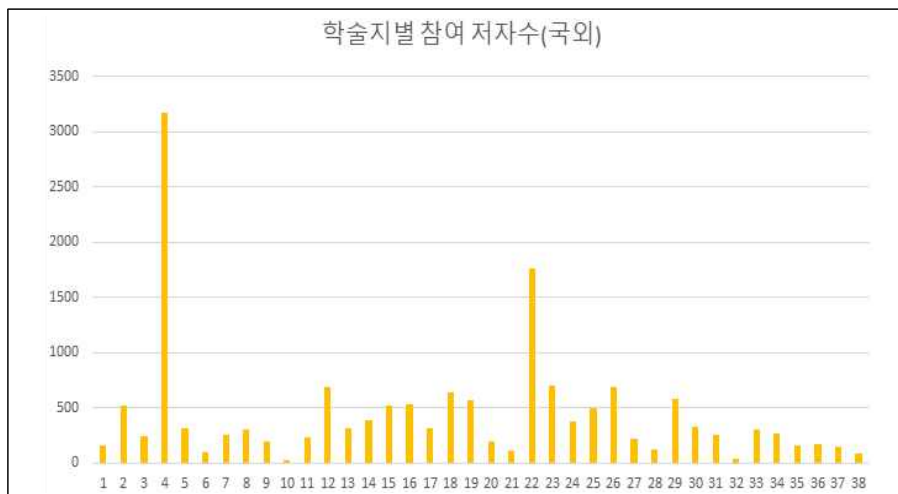
<그림 1>은 국내 각 학술지의 논문 게재에 참여한 총 저자수로 중복을 포함한다. 국내의 경우 대체적으로 균등한 참여저자수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고, 학술지당 최소 302명, 최대 408명, 4종 학술지의 총 논문 수 768편에 대한 총 참여저자는 1,391명으로 평균 1.8명의 저자가 한 논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림 2>는 국외 학술지의 논문 게재에 참여한 총 저자수로 역시 중복을 포함하고 있다. 국외의 경우 38종의 학술지의 참여저자수의 분포가 국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는 학술지의 발행 간기와 수록 논문 수 및 학술지의 영향력에 따라 그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추측 한다. 이에 국외 학술지는 최소 87명 최대 1,760명, 38종 학술지의 총 논문 수 7,302편에 대한 총 참여저자는 16,475명으로 평균 2.25명의 저자가 한 논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표 5>와 <표 6>는 국내외 학술지의 각 각 게재논문 저자수의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국내의 경우 최대 7인이 한편의 논문에 참여하였고, 국외의 경우 최대 21인이 한편의 논문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가 국외에 비하여 단독연구의 비중이 약 8%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연구의 비중이 47%로 게재논문의 과반이상인 53%가 공동연구임이 확인가능 하다. 또한 앞서 밝혔듯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외의 높은 공동연구 참여율을 재확인 할 수 있는데, 국외의 경우 60%이상의 게재논문이 공동연구임을 파악 수 있었다. 또한 국내 단독연구의 평균인용수는 0.97회 인 것에 반하여 2인 1.03회, 3인 0.98회 등으로 공동연구의 평균인용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국외의 경우는 단독연구의 평균인용수가 1.4회임에 반하여 2인 3.14회, 3인 3.37회 등으로 대략 2배 이상의 인용수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4호)

한편, <그림 7>, <그림 8>은 논문의 저자 수에 따른 게재논문 수와 인용 수 그리고 인용의 평균을 그래프화 한 것으로, 국내의 경우, 전반적으로 논문 수에 비해 인용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외의 경우 반대로 인용수가 높게 나타나 국외학술지의 영향력을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 학술지별 참여 저자수(국내)



<그림 2> 학술지별 참여 저자수(국외)

〈표 5〉 논문 저자 수(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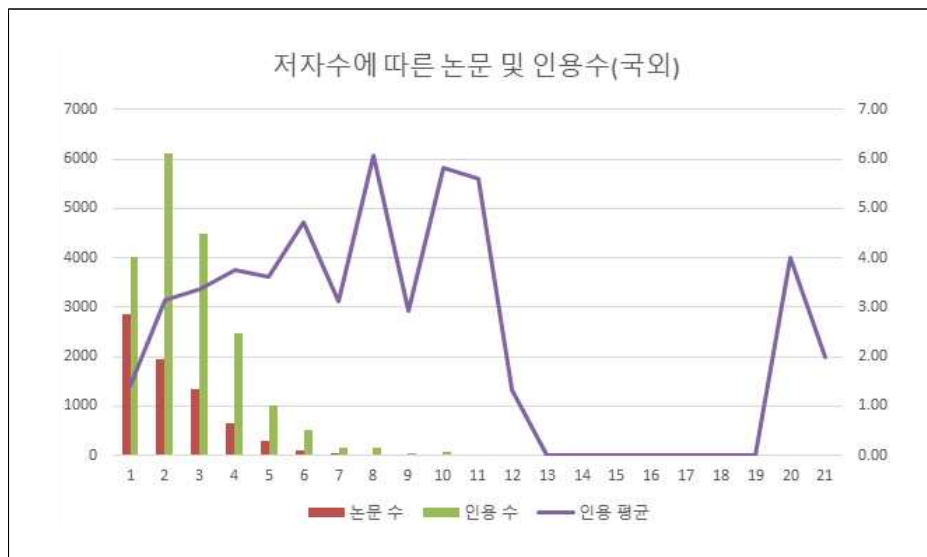
저자 수	논문 수	비율	인용 수	인용평균
1	359	47%	349	0.97
2	262	34%	269	1.03
3	96	13%	94	0.98
4	38	5%	39	1.03
5	11	1%	10	0.91
6	1	0%	0	0.00
7	1	0%	1	1.00

〈표 6〉 논문 저자 수(국외)

저자 수	논문 수	비율	인용 수	인용평균
1	2864	39%	4012	1.40
2	1944	27%	6104	3.14
3	1334	18%	4496	3.37
4	657	9%	2464	3.75
5	281	4%	1019	3.63
6	110	2%	518	4.71
7	51	1%	159	3.12
8	23	0%	140	6.09
9	16	0%	47	2.94
10	11	0%	64	5.82
11	5	0%	28	5.60
12	3	0%	4	1.33
13	0	0%	0	0.00
14	1	0%	0	0.00
15	0	0%	0	0.00
16	0	0%	0	0.00
17	0	0%	0	0.00
18	0	0%	0	0.00
19	0	0%	0	0.00
20	1	0%	4	4.00
21	1	0%	2	2.00



<그림 3> 논문 참여 저자수별 논문 수 및 인용 수 분포(국내)



<그림 4> 논문 참여 저자수별 논문 수 및 인용 수 분포(국외)

<표 7> 학술지 및 논문 편당 저자/인용 수

평균	학술지(4, 38)		논문(768, 7,302)	
	저자 수	인용 수	저자 수	인용 수
KCI (530, 761)	132.5	190.25	1.44	0.99
SSCI (10,559, 19,061)	277.8	501.6	0.69	2.6

<표 7> 은 중복을 제외한 학술지 및 논문 편당 평균 저자 및 인용수를 나타 낸 것으로, 저자 수는 총 학술지를 아울러 논문에 한번이라도 참여한 저자의 중복을 제외한 총인원이며, 그 결과 국내는 530명, 국외는 10,559명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학술지 1종당 평균 약 133명의 저자가 참여하였으며 논문 편당 1.4명의 저자가, 국외의 경우 학술지 1종당 평균 약 278명, 논문 편당 대략 0.7명의 저자가 논문 한편 이상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 적으로 논문 편당 저자수를 통해 국내 학술지의 참여 연구자들이 국외 보다 높은 생산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측 할 수 있으나, <그림 5>와 <그림 6>은 국내 학술지의 게재논문 저자 530명과 국외학술지 게재논문저자 10,559명의 실제 게재 논문편수를 그래프화 한 것인데, 국내외 모두 단일 편 게재 저자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논문 의 생산성 측면에서는 국내외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표 5>와<표 6>에서 확 인 된 바와 같이 실제적 공동연구비율은 국외 학술지가 국내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또한 <표 7>에서처럼 학술지 종당 평균 저자 수가 대략 2배정도 국외가 높은 것으로 이 역시 국외 학술지의 공동연구가 국내학술지의 공동연구의 비율이 높기에 나타나는 현상으 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와 국외 연구자들의 연구 생산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논문의 인용 수 대략 편당 3배 즈음 국외가 높아, 국내 학술지가 국외에 비하여 위상이 상대적으로 저조함을 파악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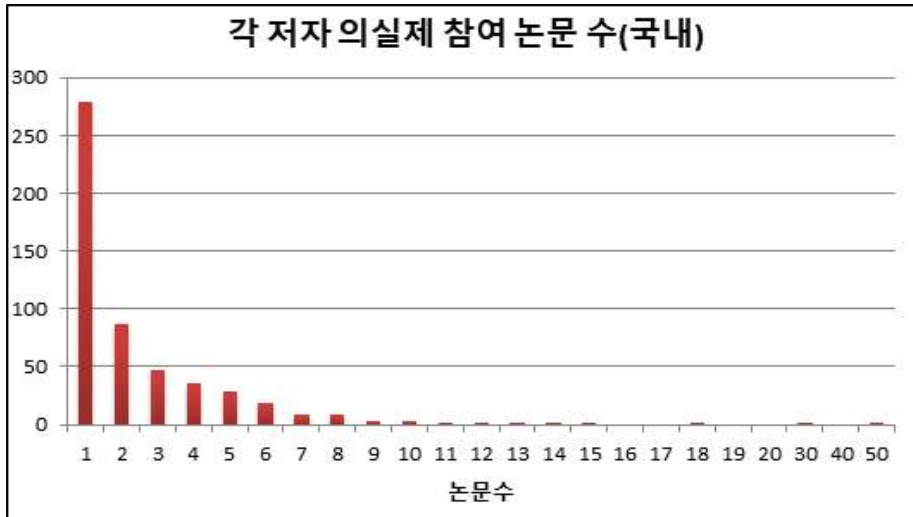
이를 종합하면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모두 주로 단일연구가 공동연구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많이 게재 되는 유사한 패턴을 지니고 있으나, 국외가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공동연 구비율 보여주었다. 한편 인용 수 측면에서 국외 학술지 게재논문이 국내에 비하여 높기에, 국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와 위상을 지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과를 학술지에 다양하게 , 특히 국외 학술지가 국내 학술지에 비하여 공동연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2. 기관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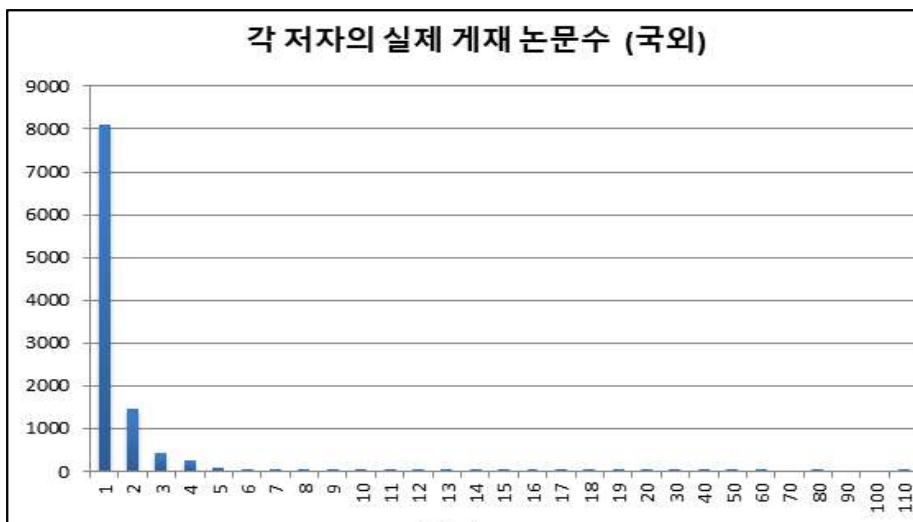
<표 8>은 게재논문의 저자의 기관을 추출하여 분석한 것으로, 소속명이 불분명하거나 무 소속인 것은 “소속무기명”으로 하여 산출 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에서 2016년의 3년간 국내는 152개 기관, 국외는 2,826개 기관에서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1개 기관에서 평균 약 6.6편의 논문을 게재 하였으며, 국외의 경우는 1개 기관 에서 평균 3.7편의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인용 수는 국내 6.3회, 국외 11.8회로 약 2회 정도 인용수의 차이가 드러났다. 그리고 기관의 논문편당 평균 인용 수에 대하여 국내는 0.7회로 거의 인용이 없다고 보여 지는 반면, 국외의 경우 2.8회로 약 3회에 가까운 인용수를 나타내었다.

앞서 저자별 분석의 결과의 <표 5>와 <표 6>에서 확인했던바와 같이, 게재논문의 절반



<그림 5> 게재논문 저자의 실제 참여논문 수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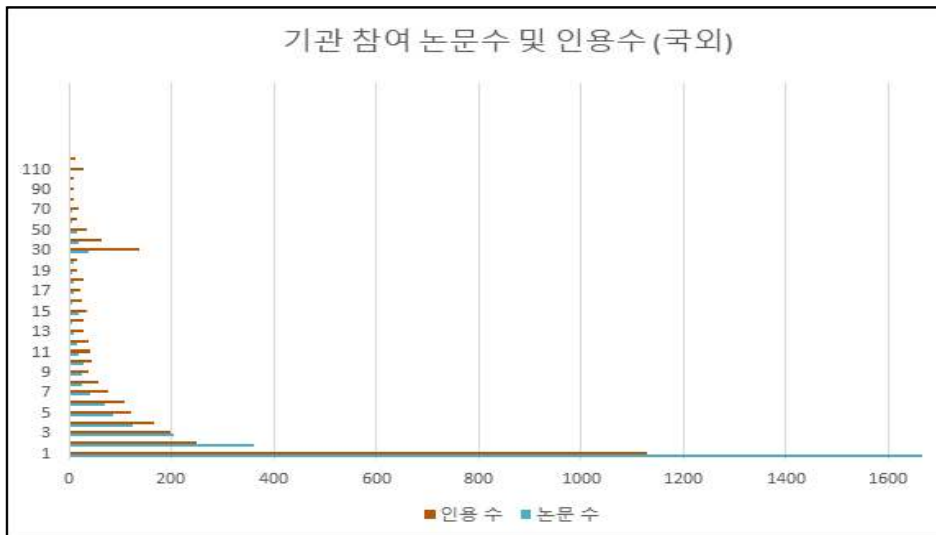
<그림 6> 게재논문 저자의 실제 참여논문 수 (국외)

가량이 공동연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림 5><그림 6>에서처럼 단독 연구자의 단일편 논문이 최대 게재치 이긴 하나, <표 8>에서 보여지 듯 공동연구를 통한 다양한 소속의 연구자들의 평균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했을 때, 국외의 경우 국내보다 기관별 논문수가 대략 3편정도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내학술지에 게재하는 기관이 국외 보다 논문의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으나, 실제적으로 국내학술지 4종의 평균 게재 저자의 소속기관은 대략 38개 기관, 국외의 경우는 약 74개 기관정도로 두배 즈음 많은 기관들이 국외 학술지에 게재 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소속의 연구자들이 국내보다 국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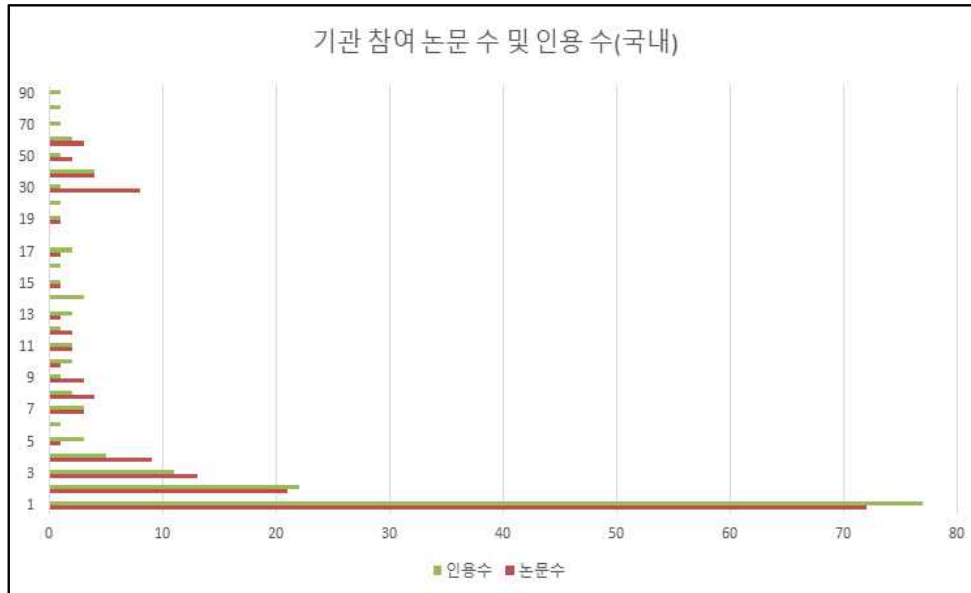
<표 8> 기관별 통계현황

	논문 수(768, 7,302)				인용 수(762, 19,061)				인용 수/논문 수			
	평균	최소	최대	편차	평균	최소	최대	편차	평균	최소	최대	편차
KCI (152)	6.6	1	55	11.4	6.3	0	82	13.9	0.7	0	3	0.8
SSCI (2,826)	3.7	1	103	7.7	11.8	0	977	38.7	2.8	0	67	7.7

에 연구 결과를 많이 발표 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따라서 국외학술지 게재 논문의 저자들의 소속 범위가 국내 보다 상대적으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함을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 다양한 소속의 연구자가 참여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다양한 기관의 독자들이 학술지를 접할 기회나 확률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림 7>과 <그림 8>은 각 기관들이 실제 게재논문의 소속기관별 논문수와 인용수를 그래프화 한 것이다. 국내의 경우 72개 기관에서 단일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게재된 논문의 인용수가 1회인 기관은 77개 기관으로 이는 논문 총 인용수 대비 약 10%에 해당하며, 국외의 경우, 1,666개 기관에서 단일편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게재된 논문이 1회 인용된 기관은 1,129개 기관으로 대략 6%정도만이 인용 수가 1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내와 국외 모두 절반에 근접한 기관에서 단독연구를 진행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으나, 논문의 1회 인용에서 2배정도 국내와 국외의 차이가 드러나면서 전반적으로 국외학술지가 국내학술지에 비하여 영향력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국외 학술지의 높은 인용 수는 독자의 기저에 질 높은 연구임을 암시하고 이는 다양한 독자들의 접근을 도모한다(Chou 2014). 또한 국외학술지의 상대적으로 높은 공동연구 비율은 다양한 기관의 참여와 더불어 그 구독자규모가 국내보다 클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7> 기관별 참여 논문 수 및 인용 수(국외)



〈그림 8〉 기관별 참여 논문 수 및 인용 수(국내)

V. 결론

본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재된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4개 학술지 논문 768편과 국외 사화과학인용색인(SSCI)에 등재된 국외 문헌정보학분야 38개 학술지 7,302편의 논문을 수집하여 게재논문의 특성과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국내 학술지 4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외 학술지 38종의 다양한 발행 간기는 연구자가 보다 최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논문을 투고하는데 보다 넓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둘째, 국내외 학술지 편당 게재 논문 수는 유사하나 국외 학술지가 국내 학술지보다 그 인용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외 학술지가 국내 학술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셋째, 저자별 분석을 통하여 국내외 학술지의 게재논문 모두 전반적으로 단독연구보다 2

인이상의 공동연구의 결과를 수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공동연구의 평균 인용수가 단독연구의 평균 인용수보다 높아 공동연구의 결과의 영향력이 단독연구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넷째, 기관별 분석을 통하여 국내학술지보다 국외학술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기관에서 논문에 투고를 하고 있고 국외학술지의 인용과 공동연구 비율이 국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외 학술지에 보다 다양한 연구자들이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독자들이 학술지를 구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국내외 연구 모두 현재 공동연구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영향력이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외학술지가 국내학술지 보다 월등하게 공동연구 수행이 높았으며, 이는 국외 학술지들의 참여 연구자들이 연구수행에 있어 보다 잠재적으로 연구의 질적 상승 요소를 내재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자들과의 연구교류를 활발히 진행중임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Smart and Bayer 1986). 물론 이러한 공동연구가 논문의 영향력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것은 아니나(Levitt and Thelwall 2009; Ding 2011; Gazni and Thelwall 2014), 다양한 연구자들과의 학술적 교류는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연구의 계획과 진행을 도모한다.

국내의 공동연구진행이 국외보다 더딘 것은 국내의 연구자들이 주로 소속된 대학에서 수행하는 연구업적평가에 따른 영향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연구업적평가는 주로 발표논문의 편당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며, 발표 논문의 연구 인원이 증가할수록 그 연구 업적이 절하 되는 불이익이 존재하므로(이혜경, 양기덕 2017; 이혜경, 양기덕, 김선욱 2019), 연구자들의 무궁한 연구욕구를 저해하는 일단의 요소로 연구업적 평가의 개선이 요구된다.

한편 다양한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의 학술지 논문 참여는 이에 따른 독자층이 보다 광범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국외학술지에 국내 학술지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논문의 수요를 짐작 가능 하며, 이는 연구자들이 논문 투고 시에 고려할 수 있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내학술지는 국외학술지에 비하여 투고자의 국적 분포가 한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오동근 외 2018), 이는 본 연구에서의 분석과 같이 국외와는 상대적으로 한정적인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 수와 저자 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한다. 그러므로 국내 학술지에 다양한 국가의 연구자들이 투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이를 통해 투고 논문 수를 증가 시켜 발행 학술지당 논문을 현재보다 많이 수록 해 최소한의 간기를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다 견고히 나타내었다.

국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국외 학술지의 공동연구 게재 비율과 인용 수는 국내 학술지의

국제화에서 분명히 고려해야할 요소로 확인 되었으며, 폭 넓은 연구자와 기관을 아우르는 투고 논문의 게재를 장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지 총 42종에 게재된 약 3년간의 논문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는 타 학문분야의 학술지 출판 및 게재논문의 특성과는 상이 할 수 있기에, 본 연구를 전체 학문 분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국내학술지들의 국제화를 위한 발전과 구체적인 활로 탐색을 목적으로 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특정분야를 선정하여 실제적인 논문의 서지사항을 통해 게재논문들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 것에 의미가 있으며, 본 연구가 타 학문 분야의 학술지 게재논문 연구의 수행 등의 후속연구를 도모 하고, 문헌정보학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외 다양한 인문사회과학 연구 분야의 학술지가 국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초연구자료로서의 역할을 해낼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신은자. 2011. 국내 SCIE 학술지의 출판 현황과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4): 157-178.
- 신은자, 최희윤, 서태설, 2015. 해외 영향력 확산을 위한 국내 학술지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 - KoreaScience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4):159-177.
- 오동근 외. 2014.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한 운영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2):159-178.
- 오동근 외. 2018. 국제 학술지 발간 개선을 위한 자매학술지의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3): 219-240.
- 이승채. 2003. 우리나라 학술지 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1): 227-245.
- 이혜경, 양기덕. 2017. 국내대학의 학술논문 연구업적평가기준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2): 295-322.
- 이혜경, 양기덕, 김선욱. 2019.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공동연구 동향 분석 :학술지 논문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2):191-214.
- 최은주, 양기덕. 2018. 국내 문헌정보학과 교수연구업적의 계량적 분석.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1(1): 55-86.
-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www.kci.go.kr>) [online cited 2019. 11. 16].
- Buela-Casal, G. et al. 2006. "Measuring Internationality: Reflections and Perspectives

- on Academic Journals.” *Scientometrics*, 67(1): 45–65.
- Buela–Casal, G. and Zych, I. 2012. “How to Measure the Internationality of Scientific Publications.” *Psicothema*, 24(3): 435–441.
- Calver, M. et al. 2010. “What Makes a Journal International? A Case Study Using Conservation Biology Journals.” *Scientometrics*, 85(2): 387–400.
- Chou, C. P. (2014). Why the SSCI Syndrome is a global phenomenon. The SSCI Syndrome in Higher Education A Local or Global Phenomenon.
- Cramton, Catherine Durnell 2001. “The Mutual Knowledge Problem and its Consequences in Dispersed Collaboration”, *Organization Science*, 12(3): 346–371.
- Ding, Y. 2011. “Scientific collaboration and endorsement: Network analysis of coauthorship and citation networks.” *Journal of informetrics*, 5(1): 187–203.
- Gazni, A., & Thelwall, M. 2014. “The long–term influence of collaboration on citation patterns.” *Research Evaluation*, 23(3): 261–271.
- Levitt, J. M., & Thelwall, M. 2009. “Citation levels and collaboration with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0(3), 434–442.
- Lundberg, J., Fransson, A., Brommels, M., Skar, J., & Lundkvist, I. (2006). Is it better or just the same? Article identification strategies impact bibliometric assessments. *Scientometrics*, 66(1), 183–197.
- Smart, J., & Bayer, A. 1986. “Author collaboration and impact: A note on citation rates of single and multiple authored articles.” *Scientometrics*, 10(5–6): 297–305.
- Yang, K. Lee, J. 2012. “Analysis of publication patterns in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Scientometrics*, 93(2): 233–251.
- Yang, K., Lee, J. and Choi, W. 2015. “Looking Beyond the Numbers: Bibliometric Approach to Analysis of LIS Research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4): 241–264.
- Yang, K., Lee, J. and Choi, W. 2016. “Publication and citation patterns of Korean LIS research by subject areas.” *Malaysian Journal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21(2): 67–81.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Eun-Joo, Yang, Ki-Duk. 2018. "A Bibliometric Analysi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in Korea : 2001-2016." *Discourse and Policy in Social Science*, 11(1): 55-86.
- Korea Citation Index (<http://www.kci.go.kr>) [cited 2019. 11. 16].
- Lee, Hye-Kyung, Yang, Ki-Duk, Kim, Seon-Wook. 2019. "Analysis of Trends on Collaborative Research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 Based on journal paper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2): 191-214.
- Lee, Hye-Kyung, Yang, Ki-Duk. 2017.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Universities' Journal Publication Research Performance Evaluation Standard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2): 295-322.
- Lee, Seung-Chae. 2003. "Qualitative Level of the Korean and American Journal Paper"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1): 227-245.
- Oh, Dong-Geun et. al. 2018. "An Analysis of Sister Journal Characteristics for Enhancing the Publication of International Journal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3): 219-240
- Oh, Dong-Geun et. al. 2014. "A Study on the Operation Method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Academic Journal."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2): 159-178.
- Shin, Eun-Ja. 2011. "Activation of Publishing Domestic SCIE Journals Based on the Situation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4): 157-178.
- Shin, Eun-Ja, Choi, Hee-Yoon, Seo, Tae-Sul. 2015. "Internationalization of Domestic Journals for Enhancing the Global nfluence: An Analysis on KoreaScience Journal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4):15-177.